

〈서론〉

▶지난주에는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번주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삽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이번주에 깊이 생각하는 한주 되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소통하여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는,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제사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권 대사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에는 사탄을 멸하는 참 왕이 들어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대제사장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나의 전도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의 킵입니다. 이것이 망대를 바꾸고, 여정을 찾고,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킵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입니다. 이걸 찾아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재생산하는 인생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일평생 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는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험받는 자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매일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론〉

1.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히 3:1상)

오늘 여기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

나님을 대신해서 하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3:1하)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분이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를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가 이번주에는 예수 이름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777 기도 속에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가 나에게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가 맞습니까? 이걸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약합니다. 자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히3:2)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도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로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히3:3)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를 하지만, 모세와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지만, 모세보다 더 존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히3:4)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사도로 보냈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사도로 보냈지만,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그와 같이 하셨으니(히3:5-6상)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고, 종으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도로 보냄을 받았지만,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이로서의 존귀함은 비교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같은 사도이지만 신분에 있어

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히3:6하)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백성이고 그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상속자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장래 일어날 소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2.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히3:7-8)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히3:9)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히3:10-11)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왜 못들어갔습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왜 출애굽을 하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냐, 그 이유가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 찾지 않고, 세우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꾸고, 찾고,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히3:12)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그 인생은 저주요 재앙입니다.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다른 것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보냈는지,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 3.오직 오늘이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히 3:13)

매일 말씀 붙잡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 길 밖에 없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뭘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 3:14)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마16:16입니다. 이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견고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지 않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히 3:15)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예배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완고한 마음을 성령충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고집부리지 말고, 내 주장하지 마세요. 그게 도움이 안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듣고 격노하지 않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히 3:16)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자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격노하게 한 것입니다. 애굽의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을 대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던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바꾸면 하나님의 격노를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었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히 3:17)

출애굽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격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은 게 범죄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히 3:18)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주장 따라 세상 중심으로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히 3:19)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 믿는 자, 예수가 대제사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지옥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 〈결론〉

▶예수가 누구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대제사장,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멸한 참 왕,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때문에 또한 아들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자로서 아들의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오직 오늘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